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7-9

7 주님, 당신께서 저를 꺾시어 저는 그 꺾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8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9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1-2

1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그때에 2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 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공지사항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자 모집

일시: 2027년 1월 18일(월)~22일(금)

문의: 남현옥(엘리사벳) & 김은경(파울리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부착된 종이에 기입해 주세요.

■ 한가위 위령 미사 및 본당 야외 미사 안내

일시: 9월 20일 (주일) Fort Harrison State Park, 오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연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사를 봉헌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때 다가오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 부모, 형제, 이웃들을 기억하고 기도도 합시다.

이에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미리 미사 예물 봉투를 작성하여 교무금함 또는 제대부 봉사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보편지향기도 끝에 연도도 바칩니다

* 살아있는 이를 위한 미사 (생미사) 도 봉헌 가능합니다.

■ 희망의 등불: 아시아 및 태평양 섬 공동체와의 만남 (무료)

일시: 9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9시

장소: Our Lady of the Greenwood 성당

주최: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 문화간 사목국

강사: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아시아 태평양계 담당 부국장
클라리사 마르티네스

■ 우리들의 정성 (08/23/2026)

■미사 봉헌금: \$477.00

■교무금: 강웅일 (7-12), 김춘환 (PU), 서호준 (PU), 박성윤 (PU)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 (3.3%) 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에, 월별로는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August 30, 2026 연중 제 22 주일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로마 12,2).

Do not conform yourselves to this age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Rom 12,2).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22주일(8/30)	연중 제23주일(9/6)	연중 제24주일(9/13)
해설	황현성 요셉	김성숙 M. 막달레나	이상진 프란치스코
독서	류재성 진선미	이동재 김경희	이숙 서예슬
복사	박한준 라파엘 조윤 다니엘		
반주	공승윤 수산나		
제대	곽동화 데레사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
예물	이지오 엄유하		

*독서 순서 관리: 김은경(파울리나) & 장재원(베드로)